대학생활에서 하고 싶은 일

202114110 조예나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대학에 입학했다. 초중고 시절 손꼽아 기다리던 그 시기가 드디어 나에게도 왔다. (사실 안 올 줄 알았다.) 수험공부를 하며 다짐한 사실이 있다. “아 내년엔 절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무조건 활동적으로 살아야지. 마음 먹은 하고싶은 거 다 해야지. 날아다닐 거다!!” 21년도에도 코로나가 성행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과거의 나는 그런 다짐을 했더란다. 난 사실 여건이 되는 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다. 아예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도 하고 싶고, 새로운 시도도 하고 싶고,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싶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일 처음으로는 난 춤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었다. 여담이지만 공부하다 힘들 때 춤동아리에 든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버텨내곤 했다. 중고등학교때 댄스부를 해본 적은 없지만 수학여행 장기자랑이라던지, 축제 장기자랑 준비하면서 꽤나 재밌었다. 그래서 입학 이후 춤동아리 가입을 위해 열심히 춤 연습을 했다. (춤 연습하다가 노트북에 물 쏟아서 아찔했던 경험도 있다. 그만큼 난 진심이었다.) 근데 춤동아리가 없어졌단다..! 그래서 저는 눈물을 머금고 다른 동아리를 알아보았다.

그렇게 차선책으로 공연기획 동아리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번주 일요일에 공식적으로는 첫 활동이 있는데 너무 기대된다. 코로나 때문에 계획했던 것들 무산되고 결국 마련한 방안이다. 그래도 좋다.. 아예 해보지 않은 분야이지만 의외로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기대된다

그리고 운동을 하고자 배드민턴 소모임과 등산 소모임에 가입했는데, 이 소모임들도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활동한 적이 없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나태한 나를 벗어나 운동을 좋아하는 활동적인 내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살 빼고 싶었다. 하지만 이는 불가했고, 나는 여전히 나태하다.

대학에 오면 다이어트를 꼭 하고 싶었다. 하지만 안 한다… 운동도 안하고 의지도 없다. 이거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이어트 꼭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운동을 절실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팁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번년도 내에 다이어트를 하긴 할까…? 라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해 말하자면, 현재 it융합 자율학부에 입학해,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로써 풀어내는 각국의 언어와는 다르게 프로그래밍 언어는 비교적 단기간에 배울 수 있다는 사실도 신기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미숙하지만 꾸준히 공부하다보면 언젠간 저도 프로그래밍 언어의 장인이 되어 있을거라 믿는다.

그리고 확실히 고등학교에 비해 시간이 널널해진 만큼 알바가 아닌 다른 수익을 창출할 어떤 것들도 해 보고 싶다. 아까 창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게나마 하는 창업 혹은 나만의 글쓰기 같은 것, 나만의 컨텐츠들을 해 보고 싶다. 우발적이지만 창업 동아리에 가입할까도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과 교복 입고 롯데월드 놀러가고 싶다. 만우절에 교복 입고 고등학교도 가고 싶다. 스승의 날에 선생님들도 찾아 뵙고 싶다. 어엿한 성인이 된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저는 집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대면수업이 하고 싶다. 특히 발표나 토론수업 같은 경우 대면으로 했을 때엔 청중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데 비대면으로 진행할 시엔 반응 파악이 힘들어 말하는 데에도 괜히 눈치를 보게 된다. 마치 지금처럼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해 보고 싶습니다. 가기만 한다면요..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말을 하다보니 의도치 않게 내가 욕망덩어리가 된 듯한 기분이 드는데, 제가 말한 것 중 대부분은 사실 약 2년 전만 해도 당연한 것이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된 현실이 너무너무 슬프다. 결국엔 이렇게 코로나 얘기로 빠지는데 모두의 힘을 합쳐 코로나가 하루 빨리 종식되었으면 한다. 그럼 이 소망 중 대다수는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